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대한민국
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11월 22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기술기반팀 이재식 팀장(2110-5510), 전성규 사무관(2110-5512)

산업기술개발장비 이용, e-Tube로 한번에 해결!

-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 플랫폼(e-Tube) 오픈 -

- 「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·활용 혁신대책」(장비 거점센터 (50여개) 지정, 유휴·불용 장비 일제정비, 장비 민간 위탁 시범추진 등) 발표 -

- 2018년까지 장비 활용률을 46→60% 이상으로 높이기로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: 윤상직)는 **11월 21일**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(아모리스홀)에서 김재홍 1차관과 관련기관·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설 행사를 갖고, e-Tube (www.etube.re.kr, 산업기술개발장비* 통합관리플랫폼)를 공식 오픈하였음 (붙임 1참조)

* 산업기술 개발기획→ 연구개발→ 시험·평가→ 시생산인증→ 사업화에 소요되는 장비

○ 이번 플랫폼은 그간 **산업부가 3조원을 투자**('00~'12)하여 기업·연구소 등의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구축한 **1만3천여대(3천만원 이상 기준)의 장비**를 외부 **기업들이 손쉽게 검색, 장비사양 확인, 예약하여 사용**하도록 한 시스템임 (붙임2 참조)

□ 산업부는 그동안 많은 장비구축에도 불구하고, 통합적인 정보제공과 활용절차 없이 **다양한 장비 보유기관이 제각각 장비정보를 제공**함에 따라, **외부 기업이 장비를 활용하는 데에 많은 불편함**이 있었음

○ 이에, 산업부는 **정부 3.0사업 차원**에서 시스템 구축을 통한 **통합적 장비정보 제공**으로 **장비 사용자가 손쉽게 장비를 탐색·활용**하게 되어, 결과적으로 공동장비 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

○ 특히, 장비지도 공개를 통해 **장비 검색, 위치확인 및 예약절차를 단순화함**으로써 장비사용자의 이용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음

□ 한편 산업부는 산업기술개발장비를 **효과적으로 구축**하고, **도입된 장비를 적극 활용**하기 위해 3대 부문 9개 대책을 담은 「**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·활용 혁신대책**」(붙임 3 참조)을 발표하였음

○ 주요내용으로 장비구축의 '**선택과 집중**'을 위해 기업의 활용이 높은 센터를 '**공동장비활용 거점센터**'로 **지정('14년 50여개)**하여, **장비구축 지원을 집중**해 나갈 계획임

○ 또한,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화되고 활용율이 낮은 **유휴·불용장비**를 '14년 1사분기중으로 일괄 접수받아 심의 후 **활용가능한 대학이나 여타 공공기관에 이전**할 계획임

○ 장비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연구소·대학 등이 보유중인 저활용 장비들을 **시범적으로 민간 장비운용 사업자에게 위탁운영**을 추진하게 됨

○ 또한, 장비도입시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기술개발 수행시 1억원 이상 장비도입에 대해 심의하는 **'중앙장비심의위원회'의 대상장비를 3천만원 이상 장비로 대폭 확대**하기로 함

□ **산업부 김재홍 1차관**은 축사를 통해 산업기술기반구축, 기술개발과제를 통한 장비구축 등 **매년 약 3,000억원 이상 규모**로 신규 장비구축을 지원해오고 있으나,

○ 그동안 장비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, **구축된 장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측면**이 있어 이를 **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**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힘

○ 산업부는 금일 오픈한 e-Tube와 활용대책을 통해 공**동활용장비의 활용률을 18년까지 60% 이상으로 제고** ('12년 현재 46%)하고, **민간 장비렌탈 시장의 성장을 지원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팀 전성규 사무관(☎ 02-2110-551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행사 개요

□ 행사 목적

○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플랫폼(**www.etube.re.kr**) 공식 오픈

* 對국민 장비정보 제공 (정부 3.0) 및 간편한 장비 공동이용 서비스 개시

○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·활용 혁신대책 발표 및 토론(Q&A)

* 산업부 차원의 장비 도입·활용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추진방향 토론

□ 일 시 : 2013. 11. 21 (목) 오후 2:00~3:40

□ 장 소 : 영등포 타임스퀘어 5층 아모리스홀

□ 참 석 자 : **제 1차관**,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, 장비 관계자* 등 150여명

* TP, 출연연, 전문연, 중소기업, 대학 산학협력단, 전담기관 등

□ 세부 일정(안)

시 간		구 분	비 고
(제1부) **장비 플랫폼(e-Tube) 오픈행사**			
14:00~14:01	1′	개회 선언	사회자
14:01~14:05	4′	내빈 소개	사회자
14:05~14:11	6′	경과보고 및 e-Tube 동영상	사회자
14:11~14:15	4′	개회사	KEIT 원장
14:15~14:19	**4′**	**격려사**	**산업부 차관**
14:19~14:23	4′	e-Tube 오픈 기념연출	차관, KEIT, TP, 전문연, 산기회, 대학 산학협력단, 상공회의소 의 장 등
14:23~14:25	2′	기념촬영	
14:25~14:35	10′	Intermission	
(제2부) **장비 도입·활용 혁신대책 발표 및 토론**			
14:35~14:50	15′	대책 발표	산업기술기반팀장
14:50~15:40	50′	패널 토론 및 Q&A	산업기술정책관(주재)

붙임 2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플랫폼 (e-Tube)

□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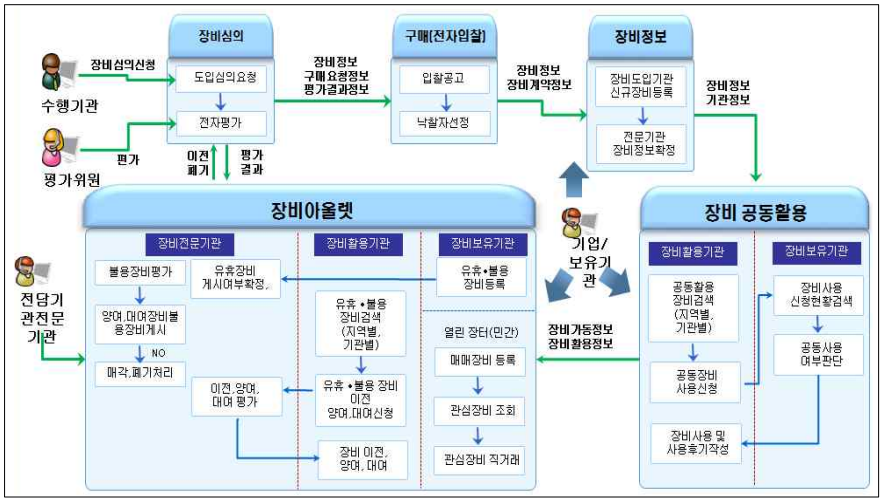
○ 공동활용 목적으로 구축된 13,666대 (3천만원 이상, '00~'12년) 장비의 **사용자 편의 제공** 및 **전주기 관리**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

* 매년 3천만원 이상 공동활용 장비 약 1,000여대 이상 신규 등록 예상

- 장비 보유기관과 격리·위치한 중소기업들이 **손쉽게 장비 보유기관의 장비정보를 획득**하여 원활히 사용토록 지원

* 장비사용자의 68%가 산단 등에 위치한 중소기업이나, 장비 정보획득과 원거리 이용에 애로 (연구장비 활용편의 제고방안을 위한 설문조사, '12.11.2., KEIT)

- 각 장비별로 **장비사양 정보**(14개), **제조정보**(16개), 보유기관 정보(5개) 등 표준화된 78개 항목의 장비DB 정보 제공 (**정부 3.0**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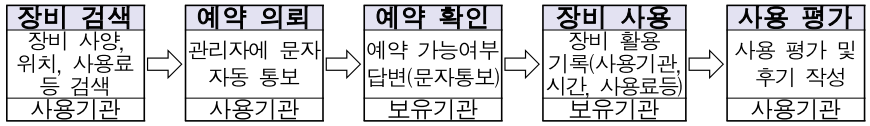


□ 활용 방안

○ 장비 사용자는 **공동활용장비 검색, 위치* 및 사양 확인,** 온라인 **사용예약 및 사용후기 등록**까지 일괄하여 장비를 사용

* **위치검색**: 검색조건에서 원하는 장비를 검색하면 관련 장비가 지도상에서 검색되고, 이 중 특정장비를 선택·클릭하면 장비보유기관과 위치, 연락처 정보를 일괄 확인

< 공동활용장비 사용 흐름도 >



○ 장비정보 이용자는 제공된 정보를 재가공하여 시장성 있는 연구개발 **장비 개발**과 **장비 렌탈·유지보수 서비스** 등에 활용

□ 기대 효과

○ **(사용자)** 장비 정보 **탐색비용 절감 및 사용 편의성 강화**로 중소기업들의 장비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장비 활용률을 제고

- **장비 제조업체, 장비렌탈, 장비유지보수** 업체 등은 장비 정보를 재가공하여 장비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활용

○ **(관리기관)** 장비 활용도에 대한 **체계적인 정보 수집, 관리**가 가능하고, 기업의 장비수요 정보 취득으로 **효율적인 장비도입** 가능

○ **(정부)** 장비 활용률 제고 및 장비 렌탈을 통한 신규도입 대체로 **R&D 비용절감 등 예산효율성 제고**

□ 운영계획(안)

○ (1단계) **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안정화** (산기평 장비단, ~'14.上)

- **모바일앱 개발**, 동영상서비스 확대,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, **렌탈장비 등록** 등 민간에 시스템 개방

- 장비 보유기관에서 개별 운영중인 **장비 이용시스템*을 e-Tube로 연계 또는 통합**하고, **이용자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표준화**

* TP, 전문연, 특화센터 등 270여개 기관별 이용시스템,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체 규정과 프로세스에 따라 13,000여대 장비를 운영 중

○ (2단계) **플랫폼 활성화 및 정착** (민간위탁 추진, '14.下~)

-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사용자 수요에 기반한 운영을 위해 **플랫폼 민간위탁 등 추진**

붙임 3 「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·활용 혁신대책」 주요내용

Ⅰ. 현황 및 문제점

□ **(현황)** 그간 産·學·硏의 **산업기술개발 활동 촉진**과 **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**를 위해 **산업기술개발장비 구축을 꾸준히 확대***

* '00~'12년간, 기반조성사업 중심으로 약 3조원 투자, 3천만원 이상 장비 21,632대 구축

- (가격별) 1억원 이상 고가장비(2조 2,530억원, 전체의 74%)
- (재원별) 기반조성사업(58%), 기술개발사업(28%), 지역사업(13%) 順
- (용도별) 분석장비(26%), 시험장비(25%), 시생산장비(15%), 계측장비(14%) 順
- (기관별) 공공연구소(41%), 대학(21%), 테크노파크(15%) 順

○ 産·學·硏 **공동활용**(허용 포함) **장비*는 전체의 63%** (13,666대)에 이르나, 공동활용장비의 **'12년 평균 가동률은 46%**로 저조*

* 장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학연 공동활용장비, 기술개발用 단독활용장비로 구분

□ **(문제점)** 그간의 산업기술기반정책이 **기술개발수요 지원을 위한 신규 구축에 치중**하면서 **산업현장의 수요와 괴리**된, 공급자 위주 기반조성

○ 장비 이용정보의 부족, 제도의 미비 등 **공동활용에 필요한 기반이 불충분**하고, **지원을 위한** 추진체계, 예산 및 인력 등 **환경도 열악**

○ 또한, 장비 도입심사가 형식화되고, 렌탈시장 활용 및 공동활용장비 개발 노력이 부족하여 **장비도입의 효율성 저하**

☞ 앞으로는 **장비의 양적인 구축·관리**에서 **효과적인 도입·활용으로 산업기술기반정책의 획기적인 전환 필요**

Ⅱ. 추진방향 및 전략

□ **(추진방향)** 공공 부문의 **장비 도입·활용 시스템을 혁신**하고, **민간 부문의 혁신지원 역할을 시범**적으로 도입

As-Is	⇨	To-Be
다양한 기관에 분산구축 공공기관 전담 운영 신규 장비 구축 위주		'선택과 집중'式 구축운영 민간시장 시범적 연계 활용 旣구축 장비 활용·이전·성능향상 촉진

□ **(전략)** e-Tube 구축 등 **공동활용기반 조성**, 장비활용 거점센터 지정 등 **장비활용촉진 지원**, 장비도입심사 내실화 등 **장비도입 효율화 추진**

Ⅲ. 세부 추진과제

전략 1 | 공동활용 기반조성

1 (**장비 통합관리플랫폼(e-Tube)**) 공동활용장비 **정보를 통합제공** (정부 3.0)하고, 장비 사용자가 '쉽게, 편하게, 빠르게' **장비활용 일괄서비스*** 제공

* 장비 검색, 위치 및 사양 확인, 온라인 사용예약 및 사용후기 작성까지 일괄 지원

2 (**장비 운영인력 역량강화**) **e-Tube와 장비 공동활용 거점센터를 활용**하여 장비 전문인력을 확충하고, 전문교육 및 기술세미나 추진

* 장비제조기업이 장비 구매기관에 대하여 5년간 장비운영 전문교육을 지원토록 추진

3 (**통합 장비운영제도 마련**) 장비 도입기획부터 도입, 구매, 관리·운용, 활용 및 장비이전 全주기에 걸친 **'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 운영요령'** 제정

전략 2 | 장비 활용촉진 지원

4 (**장비활용 거점센터 지정**) **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장비센터**들을 **'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활용 거점센터'**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

* 지역별·세부산업別 장비센터(전문연, TP 등) 中 50여개를 지정 ('14.下)

5 (**유휴·불용장비 일제정비 등**) 활용률이 매우 낮은 **유휴·불용장비를 이전·재활용**하고, **노후화된 공동활용장비의 성능향상** 지원

○ (정비대상) '13.12월말 기준, 보유기관이 **이전을 희망하는 장비**

* 중장위 위임으로 시행하고, 해당 보유기관·과제책임자 면책 및 향후 불이익 면제

6 (**저활용장비 민간위탁 시범추진**)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활용 장비의 **운영·관리를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**하여 장비활용도 제고 ('14.4월~)

전략 3 | 장비 도입 효율화

7 (**장비 도입심사 내실화**) 공동활용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**단독장비 도입을 최소화**하기 위하여 **중앙장비심의위원회 기능 강화** (~'14.3월)

○ 1억원 이상 장비에 대한 **심사를 협약以前에 시행**하고, 기반조성·기술개발사업의 **3천만원 이상 장비*까지** 심의 ('12.기준, 409건 → 2,058건)

* 기술개발用 단독장비 도입時, 旣구축 공동활용장비, 렌탈장비 활용가능성 심사

8 (**민간 서비스시장 활용**) e-Tube에 민간 **렌탈장비, 장비서비스기업**을 등록하고 **R&D 수행기관이 활용***토록 하여 **투자효율성 제고** ('14.4월~)

9 (**공동활용장비 개발**) e-Tube를 장비개발기업-수요기관間 **정보교류 채널**로 활용하고, 중장위 도입심의時 **국산장비 구매가능성을 검토***

* 장비개발업계 대표에게 의견개진 기회 부여